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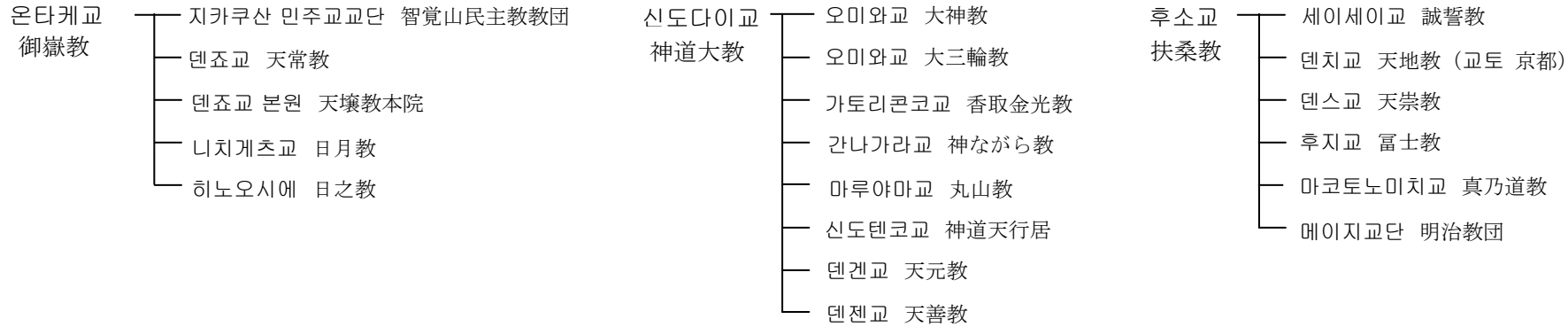
• 교파신도(教派神道) · 신도계신종교(神道系新宗教)의 분파 · 영향관계도

교파신도와 신도계신종교는 분파 · 영향관계가 있어서 이를 이해하면 가르침이나 활동의 유이성에 대해 알기 쉽다. 단, 이것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종교행정상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이다. 전쟁 전에는 신도교파로서 인가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이미 공인된 종교법인의 신도교파(13 파) 중 어느 파의 산하교회로 들어가는 편법을 취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들 교회의 대부분이 종교법인화가 용이해지는 전쟁 직후에 각각 독립된 법인이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당히 영향력이 강한 교단의 출현에 의한 경우이다. 특정 교단으로부터 분파된 교단이나 영향을 받은 교단은 매우 많다. 이러한 교단은 전쟁 이전과 이후에 관찰되지만, 특히 많은 분파가 나온 것은 덴리교(天理教), 오모토(大本), 세카이큐세이교(世界救世教)이다. 그리고 덴리교와 오모토에서 직접적으로 분파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된 신종교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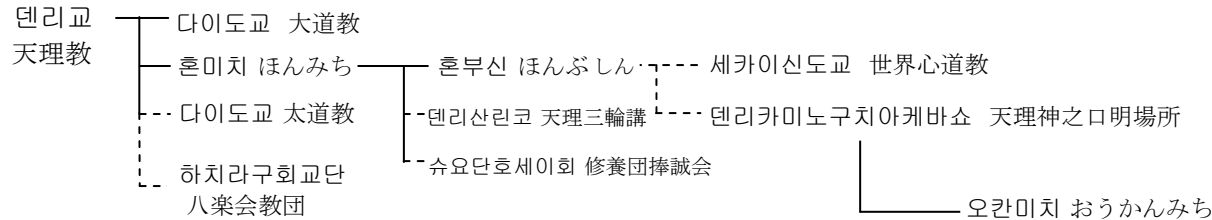
이 분파 · 영향관계도에서는 전쟁 이전의 신도 13 파 중에서 온타케교(御嶽教), 신도타이교(神道大教), 후소교(扶桑教)에서 전쟁 이후 독립된 교단과, 덴리교, 오모토, 세카이큐세이교 세 교단에서 분파된 교단(영향을 받은 교단도 포함)을 정리했다. 그 외 남은 파에서 독립된 예도 조금 있지만 할애하겠다. 덴리교는 전쟁 전에는 13 파중 하나였지만, 교단의 성격, 분파의 경위로 볼 때 온타케교와 같은 예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도표에 모든 분파를 기재하기는 번잡하기 때문에 사전 속에 기재가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또 도표 작성에는 이노우에 노부타카타(井上順孝)편 『新宗教事典』(弘文堂)의 「분파와 영향관계」의 도표를 참조했다. (실선은 분파 · 독립, 하선은 영향관계를 나타낸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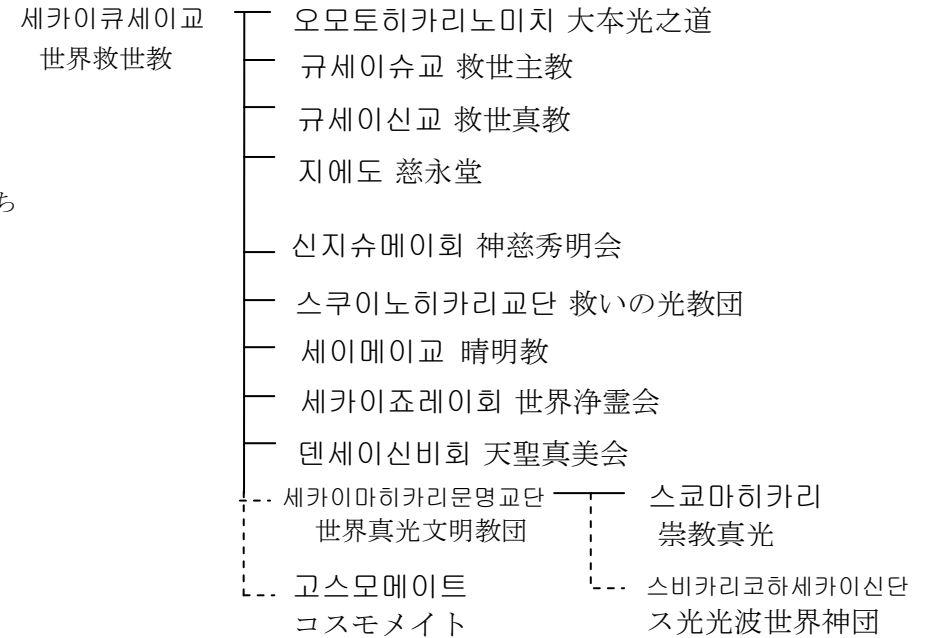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신도13파에서 분립한 예】



【덴리교계 天理教系】



【세카이큐세이교계 世界救世教系】



【오모토계 大本系】

